

비상계업 여파 속 “도민 생활 차질 없도록”

전북국제협력진흥원, 김대식 원장 재임명

전북특별자치도 공공외교 전문기관으로 역할 공고히 다짐

전북특별자치도, 전북 경제 동요 최소화 위해... 비상시스템 가동·실시간 모니터링 등 행정력 집중

전북특별자치도는 비상계업 조치로 인해 도내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중훈 경제부지사는 4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한국은행 전북본부 채희권 본부장, 전주상공회의소 김경태 이사장, 금융감독원 이훈 전북지원장,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 박준우 본부·전북은행 서두원 부행장,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윤여봉 원장, 전북신용보증재단 한종관 이사장, 전북테크노파크 이규택 원장과 함께 도내 경제 기관단체 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전북 민생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와 금융감독원 전북지원, 전북은행은 비상계업 조치로 불안정했던 증시와 환율을 해제 조치 이후 점차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중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4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도내 경제 기관단체 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전북 민생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다만 외환시장과 해외 한국 주식시장에 남아 있는 변동성을 예의주시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신속 대응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전북경제통상진흥원, 한국무역협회

전북본부, 전북테크노파크는 도내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북수출통합지원시스템과 1기업·1공무원 제도를 비상대응 창구로 운영한다. 이를 통해 수출 계약 취소, 생산 차

질, 원자재 공급 문제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중앙 및 지자체와의 협업으로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다.

수출 피해 접수는 전북수출통합지원시스템(www.jbexport.or.kr)과 수출통합지원센터(☎1644-7155)를 통해 가능하며, 도내 유관기관과 공조해 피해 기업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전북신용보증재단과 전주상공회의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유동 및 자금 조달 문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정부와 협업해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특히 피해 상황 접수 및 신속 대응을 위해 중소기업 종합지원시스템(www.jbok.kr)과 카카오톡 채널(jbok)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김중훈 경제부지사는 “도는 피해 우려상황에 대해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니, 안심하시고 일상생활을 영위해 달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출연기관인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이하 진흥원)은 김대식 현 원장의 연임이 결정되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재임명된 김대식 원장은 공공외교 및 국제교류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속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운영과 경영목표를 달성하여 진흥원의 발전 및 조직 효율성 도모의 성과를 인정받아 이사진의 의견을 통해 재임명됐다.

김대식 원장은 주카자흐스탄과 주요 만양국 대사, 국무총리실 외교안보정책관, 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지원국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과거 해외 및 중앙정부에서의 활동 경력을 바탕으로 전북의 국제역량강화, 국제역량강화, 국민의 글로벌화를 위해 분골쇄신 하겠다”며 재임명된 김대식 원장이 각

오를 밝혔다. 진흥원은 ‘글로벌 전북’을 선도하는 전북의 국제역량강화 전문기관이다. 지역과 세계를 이으며 외국인들이 전북에 유입되고 정착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김대식 원장

김대식 원장은 3년 연속 경영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게 하는 등 소통과 협치로 조직을 안정시키고 적극적인 활동 전개 기반을 구축했다.

지방소멸론과 기후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지역 자생력과 지속가능성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는 글로벌 시대에, 다른 국가들과 직접 교류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위상과 주도적 노력이 날

로 중요해지며, 그런 맥락에서 공공외교의 힘도 증시되고 있다. 이에 앞으로 진흥원의 역할이 주목된다. 김대식 원장의 임기는 2026년 12월 4일까지 2년이다. /이만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4일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 부지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문학예술인회관 건립’ 착공식을 개최했다.

전북특별자치도 문학예술인회관 건립 ‘첫 삽’

45년 역사 전북문화관, 현대적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 내년 완공 목표로 문학·예술 중심지 기대

전북특별자치도는 4일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 부지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문학예술인회관 건립’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번 착공은 45년의 역사를 지닌 전북문화관이 현대적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롭게 재탄생하는 출발점으로 의미를 더한다.

1979년 도지사 관사로 시작된 전북문화관은 이후 외국인학교와 문화관 등으로 활용되며 지역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자리 잡았지만, 시설 노후화와 비좁은 전시공간으로 인해 활용도가 점차 낮아졌다. 이에 2020년부터 신축 계획을 추진해 이번 착공에 이르렀다.

문학예술인회관은 총사업비 157억원이 투입되어 부지면적 6,225㎡, 연면적 2,968㎡ 규모로 건립된다. 설계는 전통적인 안마당과 회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주변보다 높은 웅벽을 얹고 인근 주택과 조화를 이루는 개방형 지상 1층 구조로 조성된다. 주요 시설로는 전시실, 수장고, 갤러리 카페, 다목적 강당 등이 포함되며, 다양한 문화 행사와 전시를 수용할 수 있는 다목적 복합시설로 활용될 예정이다.

문학예술인회관은 2025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문화 허브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석 전북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문학예술인회관은 지역의 문화적 기반을 강화하고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제공할 중요한 프로젝트”라며, “지역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전북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을 기념하는 의미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핵심 자원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도, 외국인 근로자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전환 요건 한시 완화

전북특별자치도는 산업계 인력 부족 해소와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법무부가 발표한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전환 활성화 방안(11월 27일)에 따라 제도 요건이 한층 완화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전환하기 위해 △4년 이상의 체류 요건, △한국어 능력, △중앙부처 또는 광역지자체의 추천을 모두 충족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제도 완화를 통해 신청 기준이 크게 낮아졌다.

먼저, 비수도권 광역지자체 추천 시 기존 4년에서 3년 이상 국내 체류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해졌다. 다음으로, 기존 한국어 요건(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TOPIK 2급 등) 충족이 어려워 비자 전환이 제한되었던 근로자를 위해 한국어 요건을 유예하는 특례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우선 전환 후 2년 내 한국어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이 특례는 한시적으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된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추천을 받아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전환하려는 외국인 근로자는 전북자치도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해 관련 서류를 준비한 뒤, 전북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일자리센터(☎063-280-1011~1013)를 통해 인터넷 또는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이만호 기자

도, 지역먹거리 지수 ‘특별상’ 수상

완주군 대상 포함 5개 지자체 수상... 전국 최다 기록 달성

전북특별자치도가 2024년 지역먹거리 지수 평가에서 특별상을 수상하며 지역먹거리 정책의 선도적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주관한 이번 평가는 지자체별 지역먹거리 정책의 성과와 계량적으로 평가하는 자리로, 전북은 2022년에 이어 두 번째로 특별상을 수상하며 광역과 기초 지자체 간 협력으로 거둔 정책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완주군이 대상을 수상하고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진안군이 우수상을 받으며, 전북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우수 지자체 5곳을 배출하는 기록을 세웠다. 이는 전북이 광역 단위는 물론 기초 단위에서도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다.

“지역먹거리 지수”는 지자체의 먹거리 정책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지역의 생산·유통·소비를 연결하는 먹거리 선순환 체계와 정책 활성화 노력을 14개의 세부 지표로 측정한다.

이번 평가에서 전북은 지역 농산

물 안전성 관리, 지역 공동체 기반 강화, 환경친화적 농업 확산 등 다각적 항목에서 높은 성과를 거두며 광역과 기초 지자체 모두에서 주목 받았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021년 ‘전라북도 먹거리 기본 조례’를 제정해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올해는 ‘2024~2028 전북특별자치도 먹거리 종합계획’을 발표해 먹거리 체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이 계획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지역 선순환 먹거리 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교육, 복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연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먹거리 정책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이번 특별상은 전북의 먹거리 정책이 전국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먹거리 체계를 강화해 전북이 대한민국 먹거리 정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모집	겨울을 보람있게! (1, 2월 동계과정)	환영
스피치기법, 웃음코칭, 리더십, 긴장해소, 시낭송, 면접스피치		
* 남녀노소 누구나 등록가능, 저렴한 등록금, 매주 1회 야간수업		
	▷전담교수 주요경력 전주교육대학 겸임교수역임 전북대학교교양과목 담당교수역임 한국스피치옹변협회 전북회장 전북인재개발원 초빙교수 “행복한스피치” 등 4권저자 스피치칼럼리스트, KBS아침마당 3회 출연 평생교육사, 시낭송가, 작사가, 옹변지도사 스피치지도사, 사회복지사 등	
* 모집기간 : 11월 20일 ~ 12월 31일까지(남, 녀 누구나 가능)		
우석대학교 평생교육원(금암동)		
전주대학교 평생교육원(호자동)		
원광대학교 평생교육원(익산시)		
문의 : 010-7304-5665, 231-6669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